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 '야권통합' 제안 배경은

'독단' 논란 정면돌파 회심의 카드

국민의당 거부로 현실화 가능성 작아... 총선 불리 공감대 형성시 논의 본격화될 듯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통합'을 전격 제안한 배경과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형성된 야권세력 결집의 여세를 몰아 총선 승리를 일궈내고 당내 외에서 제기되는 '독단' 논란을 정면돌파 하기 위한 다목적의 회심의 카드로 해석된다.

아보한다. 다만 총선 흐름이 야권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야권통합 내지는 야권연대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권에 다시 한 번 통합을 동참하자고 제의한다"며 "이기심에 집착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야권승리를 가져오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결코 야권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번 총선 분위기를 감안하면 야권세력 통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선거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열이 아닌 하나로 뭉친 야당으로 집권 여당,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과 승부를 벌여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야권이 하나로 뭉쳐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양극화 등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대안

을 제시한다면 지지세력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설사 이 제안이 실패하더라도 더민주 입장에서는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통합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 제야당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야권통합'론은 언제나 제야당에 유리한 카드다. 통합에 성공할 경우 여당에 대항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실패한다고 해도 군소 야당의 힘을 뺄 수 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이상직 의원, 영생고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사진)이 영생고 '직업탐구관 및 평생교육학습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재영 영생고등학교 교장은 2일 오전 영생고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직업탐구관 및 평생교육학습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9억 6100만원을 확보한 공로에 감사인사와 함께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역인재들이 자라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면서 "교육의 도시 전주에서 희망으로 가득한 인재들이 배출하기를 바라고,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김광영 의원, 5일 선거사무소 개소

국민의당 김광영 의원(군산·사진)이 오는 5일 군산시 수송로 188 청담빌딩 3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개소식을 전후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기조성을 포함한 주요 공약을 릴레이식으로 발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개발도도 가동할 예정이다. "오직 민생! 군산경제를 꼭 살리겠다"는 구호를 내건 김 의원은 개소식을 앞두고 "그간 성원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재선역원이 되어 지역발전에 더 큰 힘을 쓰는 든직한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정동영 돕기 위해 후보직 내려놓겠다"

국민의당 김근식 예비후보 사퇴

국민의당 김근식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가 2일 전주병 선거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김 예비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새정치와 새야당의 희망탄을 보고 달려왔다. 새 야당의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 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도가 주춤거리고 전주병에서의 승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경선은 당 내부의 경쟁이다. 경쟁이 상하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경선이 자칫 본선승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비통한 심



정으로 후보직을 그만두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정 장관과 함께 전주병을 누리며 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앞으로 당의 부름과 요구가 있다면 어디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대해 정동영 전주병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준 점에 환영을 표시하고 양보한 뜻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로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동영 예비후보 선대위는 김근식 후보가 자신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당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 위대한 결단을 내려준 점에 대해 새정치의 실천적 철학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김근식 예비후보의 사퇴로서 전주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성은순, 국민의당 정동영, 새누리당 양현철 예비후보간 경쟁으로 압축됐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입당 제안해오면 받아들일 것"

무소속 전정희 의원

무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사진)이 국민의당 입당 의사를 표명했다. <본보 2월 29일자 3면, 3월 2일자 3면> 전 의원은 2일 "국민의당의 공식 입당 제안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무소속으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박지원, 송호창 의원과 함께 입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중앙당에서 확정



된 게 아무것도 없고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당을 옮긴 정치인 중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다"며 "컷오프 뒤 개별적으로 연락해 위로하고 함께 하자고 권유한 인물이 많아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일단 국민의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예비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실정치가 이런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번 시선이 정치인으로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김성주 예비후보 "법인미용실 허용 반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병 예비후보·사진)은 2일 "K-뷰티 활성화를 빙자한 동네 미용실 죽이기 정책인 법인미용실 허용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인이 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동네미용실의 열악한 현실은 인종에도 두지 않은 채, 대기업의 자금력을 통해 손쉽게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내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골목상권 죽이기 정책이다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제벌의 투자 유치만을 이유로 동네미용실의 생존권을 베풀 끝으로 내포는 법인미용실 정책을 강행하면서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예비후보,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 협약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을·사진)는 이정현 순천국성 국회의원과의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을 위한 협약'을 1일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전북 광주전남 호남권 예산벨트 구축 통해 예산 확보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정기 개최 ▲호남권 국책사업 성공적 추진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후보는 "여당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예산 증가가 겨우 0.7%에 그쳐 증가율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며 "전북 주요 핵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도 여당일꾼이 꼭 한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도 국가예산 현황을 보면 호남권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평균 3.4%(3,802억원) 늘어났으나,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경우 1.6%(6,348억원)이나 늘었다. /신광영기자



유희태 예비후보 "한우 지역농가 특성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예비후보(완주 무주진안장수·사진)는 2일 완주군의 한우사육농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완주군을 비롯 진부장지역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를 지역농가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완주 화산면은 완주 한우사육의 1/2이 밀집되어 있을 정도로 사육두수는 전국 면 단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장수의 경우에도 이미 1천여개체 3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이들 농가들의 소득향상과 한우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시료 차별화 등으로 불포화도를 높여 한우를 명품화하여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력을 통해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연근 예비후보, 민생알맹이 공약 발표

국민의당 김연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익산을·사진)는 2일 민생알맹이 16 공약 마지막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국정과제와 지역산업을 혼합해 익산의 산업지도를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시리즈는 ▲식자재산업 육성(식자재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식품요약연구특구 지정 ▲시래기전문생산 및 수출단지 육성 ▲마을사무사 제도 운영 ▲국회메이킹태그원 조성 ▲완전한 고도 르네상스 추진 ▲마한 프로젝트 발굴 등이 담겼다. /신광영 기자



양현섭 예비후보, 팔복동 민원현장 방문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전주 병·사진)는 2일, 팔복동 소재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민원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부도입대아파트 대책위원회는 "당초 입주자들은 모 건설회사가 시공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모 건설회사를 A씨가 매수 한 후 은행으로부터 과다한 대출을 받고 고의 부도를 내어 56세대 150여 명의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 후보는 "입주민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중앙당과 연계해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국민의당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가 2일 오후 3시경 여양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동영 전 의장을 비롯해, 익산시내 200여명이 참석해 정현을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 정현을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에서 "거창한 숫자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올바른 행정을 펼쳐 나가고, 특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민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제시 공고 제2016-157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김제 도시지역.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죽산 도시지역. 3. 주민공람기간 및 장소. 4. 주민의견제출. 5. 관계도서. 6. 기타사항.